

웰빙 중심에 선 차



운동후 차 한 잔
화장품으로 피부 보호하고
녹차 내의를 입는다



피곤한 하루 일과를 끝낸 저녁, 녹차
입욕제를 온 욕조에 몸을 담그고 피로
를 푼다. 땀을 흘린 후리고 난 뒤에는 탄
산음료 대신 녹차 한 잔을 마신다. 겨울
철 까칠해진 피부를 위해 녹차 추출물
이 들어 있는 화장품용 바르고, 피부 자
극을 줄여준다는 녹차 내의를 입는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의식주 전반에 걸
쳐 웰빙(Well-being) 열풍이 몰아친 가
운데, 어느덧 차(茶)가 웰빙 문화의 중
심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다. 물질적인
가치보다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웰빙족'을 겨냥한 차
관련 상품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건강에 민감한 웰빙족의 특성상 녹차
바람이 가장 거세게 일고 있는 곳은 단
연 먹을거리 시장이다. 지난해 녹차음
료의 매출은 전년 대비 60%이상 성장
해 불황이라는 음료 소비시장을 무색
케 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발차용 이
용한 녹차 아이스크림이나 생식, 과자,
떡 등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웰빙 패션의 선두주자는 속옷업체.
몸에 좋은 천연 재료를 이용한 내의가
인기를 끄는 가운데 속옷 전문 브랜드
'보디가드'가 녹차를 이용한 건강 속옷
을 선보였다. '녹차의 향기'는 녹차 추
출물의 효과로 보습력이 탁월해 건조
피부로 고생하는 남성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녹차를 이용한 다양한 미용요법도 선

보이고 있다. 목욕물에 다양한 입욕제
를 넣어 온천 효과를 즐기는 홀스과가
값싸게 즐길 수 있는 건강요법으로 각
광받으며 피부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
론 녹차 향기를 통한 마음의 안정을 얻
을 수 있는 녹차목욕 상품이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녹차잎을 우려낸 물에 머
리를 감거나 목욕하는 민간요법을 활
용한 비누와 린스 등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웰빙족' 겨냥한 상품 붐몰 60% 성장 음료 시장 긴장 심신 평안 얻어 큰 인기

이 밖에도 소비자들이 기능성 화장품
이나 천연제품에 관심을 돌리면서 녹
차를 이용한 로션과 팩, 향수 등의 화장
품과 주방제와 섬유유연제 등 생활
용품 등에도 녹차추출물이 활용되고
있다. '웰빙을 위한 녹차소핑물'을 표
방한 인터넷 쇼핑몰을 비롯해 녹차 관
련 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속명여대 한국음식연구원(원장 한영
실)의 '티 테라피(Tea Therapy)' 강의
지도하고 있는 이은주 강사는 "육체의
안정과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차와
'웰빙'은 공통점이 많다"며 "최근 차의

의학적 효능이 속속 밝혀짐에 따라 차
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한다.

"흔히 '차'라고 하면 마음의 안정과
편안함을 연상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에
게는 차 한 잔 마시며 명상을 함으로써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다
스리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것이죠. 더
구나 과학적으로 밝혀진 암 예방과 다
이어트 효과 등이 녹차 열풍에 더욱 가
속도를 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웰빙 트렌드에 따른 녹차 열풍은 어
찌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잘 먹고
잘 살기'라는 웰빙의 목적과 차문화가
상당부분 공통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걱정되는 측면도 있다. 녹차
가 웰빙족의 소비성향을 이끄는 하나
의 '상품'으로 등장하자 뚜렷한 기준이
없는, 단지 유행에 편승해 물건을 좀더
많이 팔아보려는 상술에 이용되고 있
다는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차인연합회 정인오 상임이사(한
서대학교 다도전공 교수)는 "차문화는
차라는 물질뿐만 아니라 차를 우려내
고 마시는 행위와 그 속에 담긴 정신까
지 포괄하는 것"이라며 "차를 마시는
진정한 의미와 과정은 생략된 채 녹차
라는 '현상'만 남게 된다면 결국 바람
직한 차문화라고 볼 수는 없다"고 충고
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소장 박동춘, www.dchtea.com)가 전통 차문화를 계승할 2기 신
입 연구생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35세 이하의 4
년제 대학 졸업
자 또는 그에 준하는 학력을 가진 자로, 1차 서류
전형에 이어 한문과 논술 시험을 치러 합격해야
한다. 연구생은 5년간 차문화사 전반과 제다법 실

습, 고전강독 등을 배우게 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와 졸업증명서, 자기소개서
각 1부씩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 원서접수는 1
월 15일까지 우
편으로 받는다.
(02)504-6162

우편접수처: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주공APT
361동 506호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생 모집

차문화 교육현장

성신여대 문화산업대학원 예절다도학과

예절, 다도문화 생활화에 주력

근래 들어 차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대학에서 차
를 배울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
다. 1993년 3월 전통문화산업학과
로서 대학원 석사과정의 예절다도
학 교육을 시작한 성신여대 예절다
도학과는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하다.
'예절정신과 차문화를 생활화시킬
수 있는 지도
자 양성'을
위해 설립된
예절다도학
과는 그동안
차 관련 학문
을 체계화하
고 차문화연
구와 자료
발굴을 적극
적으로 돕는
한편, 현대



'차와 예술' 등 교육과정 주목 축제 때 학부생에 다례 시연

생활에 알맞은 차생활 교육을 정립
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교육과정에는 차에 관한 문헌 고
찰을 통해 차의 시대별 변화와 전
통성을 규명하는 '차문화연구'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인도, 서양의
차문화를 비교하면서 문화적 특성
을 배우는 '차문화 비교연구' 차에
반영된 예술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
히기 위한 '차와 예술' 등이 마련
되어 있다. 또한 우리 차문화산업
의 실태와 흐름을 파악하고, 전문
성과 우수성을 갖춘 수 있는 방향
을 모색하는 '차문화산업론' 등도
주목할만한 커리큘럼이다.

매년 5월경에는 학과생 모두 전
남 보성 차밭에서 2박3일간의 제다
실습을 하고, 학교 축제 기간에 학
부생에게 차문화를 소개하기 위한

다례를 시연하기도 한다. 또한 예
절다도학 전공생과 졸업생의 다법
과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워크숍을
6월에 개최한다. 중국과 일본으로
의 차 유적지 답사를 비롯해 외부
전문강사 초빙 특강도 빼놓을 수
없는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45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예절다도학
과에는 현재
21명의 학생
이 재학 중이
다. 거의 모
든 수업이 토
요일에 이루어
지므로 주
부나 직장인
의 비율이
높고 매주
지방에서 교
육을 받기 위해 오는 사람도 있다.

졸업 후에는 주로 대학의 차 관
련 학과 강사로 나가거나 다도와
다실 운영, 초·중·고 교사로 재
직하기도 한다.

예절다도학과에 재학 중인 김지
은(28)씨는 "대학원 과정이지만 다
양한 기초 교과 과정을 통해 튼튼
한 이론적 바탕을 쌓을 수 있다"고
말한다.

"예절다도학과 졸업생과 재학생
들의 바람은 앞으로 '성신다법'을
정립하는 것이다. 다양한 다법 중
그동안의 교육내용과 학과가 지향
하는 바에 부합하는 다법을 '성신
다법'으로 체계화시킴으로써 '차
문화 생활화'를 위한 지도자'가 되
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기 위해서다."

여수령 기자

interview

이명희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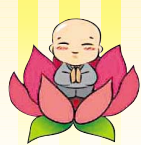
인문, 과학적 접근 가능한 교육기관

"예절과 대화의 덕목을 기르기
위한 방편으로 차 생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절과 차문화
의 전문적 연구와 가정과 학교 직장
등에서 이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돕는 지도자의 양성이 시급한
니다."

문화산업대학원 이명희 원장은
'성신여대 예절다도학과는 문화산
업대학 내의 인접 학문과의 연계

를 통해 차를 역
사·인문·예
술·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연구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이라고 강조
한다.

새로운 겸임교수 영입으로 교육
열 고취에 힘쓰고 있는 예절다도화
과는 올해부터 서울 도봉동에 있는
생활관 '난향원'을 차예절 교육 실
습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와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 만월등, 중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e-mail : chanduk21@hanmail.net